

들어가면서: 고대근동의 세력구도 변화

- 앓시리아 쇠퇴, 바빌로니아 등장

유다	이집트 제 26 왕조	앗시리아	바빌로니아
Josiah (640-609) • Jehoahaz (609)=> 왕하 24:30-33 • Jehoiakim (609-598)=> 24:34ff • Jehoiachin (598/7): 제 1 차 유배 • Zedekiah (597-587): 제 2 차 유배 • 제 3 차(582)	Necho I (665-664) Psammetichus I (664-610) Neco II (610-594) Psammetichus II (594-589) Apries (Hophra): 589-570 Amasis (570-526)	Ashurbanipal (668-627) Sin-Shar-ishkun (629-612) Asshur-uballit (612-609)	Shamash-shum-ukin (668-647) Nabopolassar (626-605) Nebuchadnezzar (605/4-562)

- 예레미야 구성
 - 보통 4 부분 (Mowinckel, 1914)
 - A.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으로 시문형식으로 씀. 1-25 장
 - B. 예레미야에 대한 내러티브로 산문형식. 26-45 장
 - C. 신명기 문체와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설교식 산문. 예) 7, 26 장
 - D. 30-31 장 등에 있는 훗날에 대한 희망으로, 기록연대를 알 수 없다. 소위 이방신탁(Oracles against the nations)은 모빙클의 구분에 들어있지 않다. [콜린스는 D 자리에 이방신탁을 배치. P. 268]
 - 서기관 바룩에 의해 집필, 전수 (렘 25:13a, "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" => 36:27-32)
 - 예레미야가 요시아왕 13 년(627 BCE)에 예언활동을 시작했다고는 하나(렘 1:2), 요시아왕의 개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(cf. 예레미야 11 장). 또한 예레미야가 요시아왕 당시 활동하고 있었다면, 왜 홀다와 함께 예레미야가 거론되지 않았을까? (왕하 22:14)
 - 히브리본(MT) vs. 70 인역(LXX). LXX 이 MT 보다 약 1/8 정도 짧다. 사해문서에 두 개의 다른 히브리어 사본이 발굴됨. (① 2QJer; 4QJer^a; 4QJer^c => longer MT 그리고 ② 4QJer^b => short LXX)

A. 예레미야의 정치적/사상적 배경

- 북이스라엘 전통
 -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 힐기야의 아들(1:1; 29:27; 32:7-9). 아나돗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(왕상 2:26-27=> 삼상 22:20-23). 예루살렘 중심의 전통적 보수세력과는 거리가 있다.
 - 예레미야의 소명에는 환상이 없다. 모세의 소명과 비슷하다. 언변이 없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 (출 4:10-17; 렘 1:4-10)=> "내 말을 네/그 입에 넣는다"(렘 1:9//신 18:18).
 - 초기 설교는 호세아와 닮았다 (예레미야 2-3 장). 비교. 렘 2:2-3; 호 2:14-15
- 요시아왕 중심인물의 계보.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(Hilkiah)가 요시아 개혁의 중심에 있었을 뿐 아니라, 그 중심인물들이 예레미야를 위기상황에서 구출했다.
 - 왕하 22:8.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요시아왕 앞에서 읽음. 예레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힐기야 (렘 1:1)
 - 왕하 22:12. 힐기야, 아히감(사반의 아들), 악볼, 사반 등이 요시아왕의 개혁을 지지.
 -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과 여선지자 홀다의 남편(살룸) 이름이 같다 (왕하 22:14; 렘 32:7). => 예레미야의 아버 힐기야, 숙부 살룸의 이름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공교롭게 요시아왕 시기와 맞아떨어진다. 우연일까?
 - 서기관 사반의 가족
 - 사반의 아들 아히감(26:24)은 요시아왕의 관료로서 성전설교 후 예레미야를 보호했다.
 - 아히감의 아들, 곧 사반의 손자, 그다랴(Gedaliah, 39:14; 40:15)는 예루살렘 멸망 후 유다 총독이 되어 예레미야를 먹여 살렸다. (Q. why Gedaliah? => maybe a pro-Babylonian)

- 그마랴(Gemariah, 36:10-12)--또 다른 사반의 아들—의 집에서 바룩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었으며,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이를 왕궁 서기관과 방백들에게 전하고 예레미야를 여호아김의 손에서 구출함(36:11).
- 엘리사(29:3)—역시 사반의 아들—가 예레미야의 서신을 바빌론으로 전했다.
- 친바빌로니아 정책
 -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시대에 이미 바빌로니아를 70 년간 섬기게 될 것을 했고(25:11; 29:10), 바벨론 포로들을 “좋은 무화과”에 비유했다(24 장). 또한 바벨론에서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(29:4-7). 바빌로니아는 야훼의 일꾼이다(25:9; 27:6).
 - 힐기야, 사반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이 요시아의 정치적/종교적 개혁에 동조하고 예레미야를 지지했거나 최소한 반대파로부터 그를 보호했다. 이런 정치적 비전이 (요시아왕이 아닌) 힐기야와 사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이들의 비전은 핵심인물(가족들)을 통해 이어졌다. 이 그룹은 최소한 그달라가 죽기까지(582 BCE) 이어졌다고 본다.
 - 결국 예레미야가 포로기 시대 신학적 입장을 위해 당시 정치권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. 혹은 야권에서 왕권중심의 기존의 세력에 대항할 목적에 토라신학/신명기신학에 근거해 예레미야를 대변인으로 사용했다. 정치/종교의 분리란 없다.
 - 예레미야서가 신명기 사관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은 신명기사가가 예레미야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것으로 이해. => “궁극적으로 예레미야의 신학은 신명기 역사가들이 보존하고 편집하였다. 편집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예레미야를 자신의 신학 렌즈를 통해 보았고 원래 예레미야의 생각보다 더 신명기 역사적으로 바꾸었다” (콜린스, 272).

B. 신학적 비판

- 성전 비판 (7 장, 26 장)
 - 렘 7:4, “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의 전이라, 여호와와의 전이라, 여호와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.” Cf. 이사야의 시온 신학(33:5=>31:5; 37:33; cf. 시편 46; 48; 76)
 -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된다 (렘 7:12, 14; **26:6**, 9).
- 지배체제 비판
 - 다윗의 마지막 자손 여호야긴에 대해 (렘 22:28-30) => “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.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, 한 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.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,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” (렘 22:30).
 - 왕권 그 자체 보다는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 => “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, 모두가 자기 잇속만 채우며,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.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” (렘 8:10b, 표준새번역).
 - 공평(mišpāt, justice)과 정의(šəḏāqāh, righteousness)의 회복=> 23:5; 33:15. 왕(king)을 목자(shepherd; 23:2, 4), 가지(branch; 23:5; 33:15)에 비유.
- 예언자 비판—참과 거짓 예언 (28 장)
 - 직업적 예언자들에 대한 비판(23:9-40).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(23:13)=> 세상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말씀을 전함.
 - 하나냐와 예레미야 예언=> 가치관의 차이
 - 예레미야 21:8-9 (=>37:3-10)과 이사야 7:9 (=>31:5; 37:33). 왕이 예언자에게 신의 뜻을 묻는 자리에서, 예레미야는 항복을, 이사야는 저항을(야훼만 의지)! 그리고 하나냐는 이사야 전통에서 있다.

결론/평가

- ✚ 예레미야의 예언은 당시 바빌론에 항복을 주장. 당시 친애급의 기존 정치적 입장과 대립. (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,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???)
- ✚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기 위해 쓰인 수단 (YHWH 의 종; 25:9; 27:6). '북방에서 오는 민족'—6:22-23=>바빌로니아; Cf. 50:2-3 새로운 이해=>페르시아.
- ✚ 결국 바벨로니아도 멸망한다(51:49-64). 이것은 보다 큰 계획 속의 일. 곧 "뽑으며, 허물며, 멸망시키며, 파괴하며, 세우며, 심게 하려는" 계획의 대미를 장식. 신의 섭리(divine providence)! 예레미야의 신학 다시하기다.

생각해 보기

1. William McKane 이란 주석가는 "a rolling corpus"라는 말로 예레미야서의 특징을 설명했다. 비단 예레미야 뿐 아니라 모든 예언서가 편집, 확대, 재편집 과정을 거친다. 한 가지 말, 사상에 대한 이해가 같은 책 안에서도 변화한다. 예레미야를 읽고, 이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.
2. 참과 거짓 예언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? 혹은 이단의 기준은?